

평창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취약계층 보일러 무상교체 지원

강동휘 기자 yulnyo@kwnews.co.kr

입력 : 2026-09-21 14:21:39 수정 : 2026-09-21 14:21:39 지면 : 2026-09-22 (15면)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평창지회와 민·관 협력 방식으로 진행



◇최순철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이용식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평창지회장이 최근 봉평면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새로 설치한 보일러 앞에서 지원 가구 주민, 공단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창】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최근 평창지역 내 취약계층 5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노후 보일러 무상 교체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탄·기름보일러 등 노후 난방시설을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공단은 올해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평창군 복지정책과의 추천 등을 거쳐 교체가 시급한 5가구를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평창읍, 미탄면, 대화면, 용평면, 봉평면 등 5개 읍·면의 가구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평창지회(지회장:이용식)가 시공을 무상으로 맡아, 민·관 협력 방식으로 별도 설치비 없이 사업비 전액을 보일러 구입에 사용할 수 있었다.

마지막 설치일에는 최순철 이사장과 이용식 지회장이 봉평면 대상 가구를 찾아 교체 작업을 살피고 보일러 사용법과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최순철 이사장은 “지역 전문단체와 함께 이웃의 생활에 꼭 필요한 도움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평창군, 협회와 협력해 주민 생활과 가까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용식 지회장은 “이번 설치가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살린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최순철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이용식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평창지회장이 최근 봉평면 취락계층 가구에서 노후 보일러 교체 작업을 함께하고 있다.

강동휘 기자 yulnyo@kwnews.co.kr

입력 : 2026-09-21 14:21:39 수정 : 2026-09-21 14:21:39 지면 : 2026-09-22 (15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최신순 추천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